

2015년 상반기 건설업 경영 성과 분석

- 성장성 · 안정성 · 수익성 지표 모두 악화, 경영 리스크 최소화 노력 긴급 -

최은정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kciel21@cerik.re.kr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한 2015년 상반기 기업공개 업체의 경영 성과 분석이 지난 8월 말 발표되었다.¹⁾ 분석 결과, 상반기 기업공개 건설사의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지표 모두 2014년 상반기와 비교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4분기와 비교해보아도 올 상반기까지 건설 매출액 감소로 기업공개 건설업체들의 성장성이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선업을 겸하는 건설기업과 건설업만을 하는 건설기업(건설업 매출 80% 이상) 간에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건설 매출액 감소로 성장성 하락

2015년도 상반기 건설 매출액은 64.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하락해 1/4분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건설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인 총 자산 증가율과 자기자본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4%p, 5.3%p가 감소해 건설업체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난해까지 활황세였던 해외 건설공사 매출 극대화에 따른 저효과와 함께 올해 해외건설 수주

가 급감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까지 부진했던 주택부문 물량 소진도 매출액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해외건설의 비중이 높은 10위 이내의 대형 건설업체들의 건설 매출액은 33조 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p가 감소하였다.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는 11~30위 중견 건설업체들의 건설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2.2%p가 감소해 12조 5,000억원을 기록하였다.

1) 본 조사는 2015년 6월 말 현재 종합건설업을 등록하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상장사(95개사)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에 2015년 상반기 영업보고서를 공시한 업체(39개사)를 대상으로 함. 이 중 2014년 또는 2015년 상반기에 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기업, 2015년 중 피합병 법인, 건설 매출이 미미한 기업 5개가 제외되어 총 128개 법인이 분석에 활용됨.

성장성 지표

(단위 : %)

구분	2014				2015	
	1/4분기	2/4분기	3/4분기		1/4분기	상반기
건설 매출액 증가율	5.0	1.4	3.2	-1.5	-4.5	-5.9
총자산 증가율	-0.1	-0.5	-3.0	1.9	0.4	-0.9
자기자본 증가율	-3.0	0.7	-5.8	14.6	3.0	-4.6
유형자산 증가율	2.6	3.6	7.0	-0.3	-4.9	2.2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15년도 상반기 기업공개 업체 경영 성과 분석 결과'.

기업 규모별 건설 매출액 및 비중

(단위 : 조원, %)

구분	2014				2015	
	1/4분기	상반기	3/4분기		1/4분기	상반기
1~10위	16.9 (60.2)	37.1 (54.4)	51.9 (60.3)	71.9 (56.4)	16.3 (60.8)	33.3 (51.8)
11~30위	6.8 (24.0)	14.8 (21.7)	19.7 (22.9)	31.5 (24.7)	5.6 (20.8)	12.5 (19.5)
31위 이하	4.4 (15.7)	16.3 (23.9)	14.5 (16.8)	24.7 (19.1)	5.0 (18.5)	18.5 (28.7)

주 : () 안 수치는 전체 매출액에 대한 비중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15년도 상반기 기업공개 업체 경영 성과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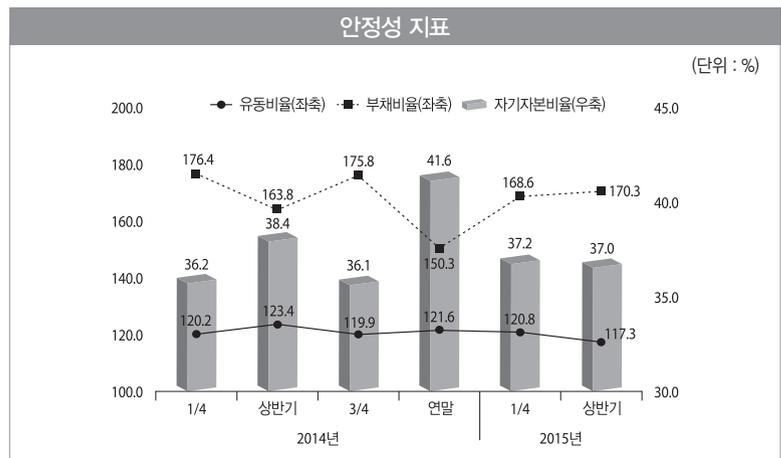
반면, 30위 이하 건설업체들의 건설 매출액은 18조 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p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내 공사를 위주로 하는 중견·중소 건설업체들이 주택경기가 살아나면서 공사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소 개선되었던 안정성도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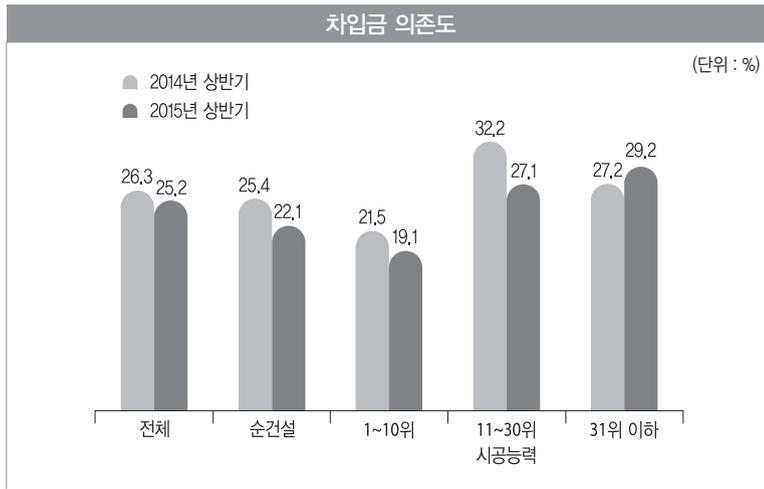
2014년 말 다소 개선을 보였던 안정성 지표는 2015년 상반기에 다시 악화되었다. 자기자본비율은 2014년 말 대비 4.6%p, 1/4분기 대비 0.2%p가 하락하였으며, 유동비율 역시 2014년 말 대비 4.3%p, 1/4분

기 대비 3.5%p가 하락하였다. 반면, 부채비율은 2014년 말 대비 20%p, 1/4분기 대비 1.7%p가 상승해 매출액 감소로 인해 안정성이 다

소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차임금 의존도는 소폭 개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1%p 감소한 25.2%를 기록하였다. 특히,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15년도 상반기 기업공개 업체 경영 성과 분석 결과'.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15년도 상반기 기업공개 업체 경영 성과 분석 결과'.

건설업을 주로 하는 순건설업의 경우 차입금 의존도가 전년 동기 대비 3.3%p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공능력순위별로도 30위 이내 건설업체들의 차입금 의존도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는데, 이들 업체의 경우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중인 중견 건설업체들의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차입금 의존도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31위 이하 건설업체들은 2014년 상반기 27.2%에서 2015년 상

반기 29.2%로 2%p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일부 조선업 등을 겸업하는 건설업체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수익성 상당 부분 악화,

건설 전문 업체의 이익률은 개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3.4%p 감소한 -2.7%를 기록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였다.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및 자기자본 순이익률도 전년 동기 대비 2.9%p 감소

한 -4.2%를 기록해 적자가 확대되었다. 이는 조선업을 겸업하고 있는 일부 대형 건설업체가 해운업 불황으로 발주 물량이 축소되고 해양 플랜트 사업이 부진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건설업을 주로 하는(건설 매출 비중이 80% 이상) 건설 전문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2014년 상반기 0.7%에서 2015년 상반기 1.9%로 1.2%p가 증가해 실적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으로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을 부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이자보상비율은 2014년 상반기 46.4%에서 2015년 상반기에는 이보다 295.8%p 하락한 -249.4%를 기록해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설 전문 업체(건설 매출 비중이 80% 이상)들의 이자보상비율은 지난해보다 161.7%p 증가한 202.2%로 매우 개선되었다. 이는 차입금 의존도가 줄어

수익성 지표

(단위: %)

구분	2014				2015	
	1/4분기	상반기	3/4분기		1/4분기	상반기
매출액 영업이익률	1.9	0.7	1.0	0.9	1.6	-2.7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2.3	-1.3	-0.4	-1.2	1.0	-4.2
자기자본 순이익률	1.2	-1.3	-0.6	-2.3	0.5	-4.2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15년도 상반기 기업공개 업체 경영 성과 분석 결과'.

이자보상비율 현황

(단위 : %)

구분	1/4분기 기준		상반기 기준		증감
	2014	2015	2014	2015	
건설업(비율)	126.2	107.9	46.4	-249.4	△295.8%p
100% 미만	60개사 (47.7%)	59개사 (46.9%)	53개사 (41.4%)	51개사 (39.9%)	△2개사 (△1.5%p)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15년도 상반기 기업공개 업체 경영 성과 분석 결과'.

들면서 수익성은 상승하게 되어 발생한 결과라 풀이된다.

계층별 분포 현황을 살펴봐도 영업 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100% 미만 업체의 비중이 2015년 상반기에 39.9%(51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1.5%p가 감소하였다.

매출 원가 소폭 상승

원가 상승도 지속되어 2014년 상반기에 92.8%이었던 매출원가비율

은 2015년 상반기에는 95.8%로 3%p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건설 전문 업체(건설 매출 비중 80% 이상) 업체들의 원가율은 2014년 상반기 94.8%에서 2015년 상반기 92.9%로 1.9%p가 감소하였다.

시공능력순위별로도 30위 이내 건설업체들의 매출원가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31위 이하는 타 업종과 겸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로 인하여 2015년 상반기에

100.7%를 기록함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7.9%p나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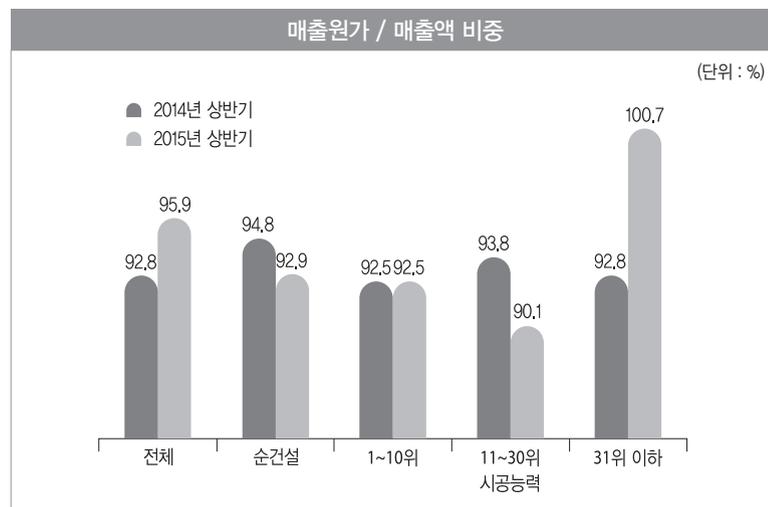
경영 리스크 최소화

재무 안정성 확보해야

2015년 상반기 기업공개 건설업체들의 경영 상태는 전년 동기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설 전문 업체의 영업 이익은 개선되어 조선업 등을 겸업하는 건설업체의 이익이 악화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양극화되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주택시장이 살아나면서 건설 전문 업체의 영업 이익이 상승하는 등 다소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의 불안정으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건설업체의 재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향후 건설업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가 요구된다.

CERIK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15년도 상반기 기업공개 업체 경영 성과 분석 결과'.